

# “민주 총출동 위세 수사 못막아” “尹 정적 제거 무도한 철권통치”

## 여야 이재명 검찰 출석 놓고 충돌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그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로 치환을 하면서 이미 민주당은 ‘레미정’의 늪에 빠졌다”며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지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정 현장에서 한 약속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역사를 통틀어봐도 세상에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줄줄이 비리 세트가 어디 있었느냐”라며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범죄였다”며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 이상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형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대면서 왜 도이치모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의 집중 추궁을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경제·민생 위기보다 정부 무능을 가리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위기에 놓인 국가 안보,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게 국회에 주어진 우선적 책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는 전부당만부당”이라며 “우리 무기 체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북한에 다 알려주는 이런 긴급 현안 질의는 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시국회 성격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 이 하나를 위해서 지금 쉽 없이 임시회를 열었다”(국민의힘 김경재 의원), “오늘 바로 이 대표가 출두하는데 무슨 방탄이냐”(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옥신각신이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m

# 검찰, 부정한 청탁·대가성 입증에 주력

## 후원금 대가 제공 등도 캐물을 듯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이 의혹 최정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가 받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여명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

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총력”

## 김대중 전남교육감 신년인터뷰

“새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자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0일 광주일보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학생은 저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별 성장 단계에 따라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주민주선 4기 전남교육의 방향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 빠르게 발달하는 첨단기술의 교육적 도입과 에듀테크의 활용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취임 이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 지난 6개월은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탄탄한 전남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토론과 소통을 통해 ‘기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수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교육의 기본일 것이다.

- 2023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자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이루겠다.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가 맞물려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이분법적·대립적 관점을 벗어나 배움의 권리와 가르침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공약을 추진 중인데.  
▲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을 저하이지만, 일자리와 교육이 또 다른 이유이다.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그 첫 출발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이다. 우선 16개 군 지역 초등학교부터 1인당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나머지 시군으로 점차 확대하는 등 임기 내 실현해 지역소멸을



##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자치 실현 전남학생교육수당 임기내 꼭 지급 교육청 내 독서교육 전담팀 신설

▲ 최근 대입 정시모집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남교육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 최근 정시 확대 추세는 91% 이상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전남의 학생에게는 불리한 실정이다. 수시·정시 전형별 맞춤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을 뒷받침하겠다. 도내 5개 시 지역에 대입지원관 등이 상주하는 (가칭)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해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려고 한다. 앞으로 300여 명의 모교 사 출제 교사를 양성하고, EBS 연계교재 등을 분석해 실전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수능 대응

능력을 높여준다.  
-다문화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데.  
▲ 현재 전남에는 5만여 다문화가정에 학생이 1만10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언어 이점을 가진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이주여성을 활용해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문화·역사 배우기 프로젝트와 ‘엄마나라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에도 신경 쓰겠다.  
-독서교육·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감각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는데.  
▲ 독서가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교육청 내에 독서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겠으며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수업지원 자료를 적극 개발해 보급하고, 각급 학교의 특화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또 학급별로 독서브랜드로 ‘전남독서인문학교’도 운영하겠다.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독서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독서토론 융합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는 인물, 중학교는 세계, 고등학교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은.  
▲ 기후변화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환경교육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환경교육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지원 등으로 학교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과 계획이 있다면.  
▲ 교육을 통해 전남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울금게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 전남교육 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 전남의 미래이고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도록 ‘전남 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m.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m.kr

# 민주 “문 닫을 때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할 때”

## 임시국회 가동 김의장·국힘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발동의 불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무책임하게 문 닫을 때가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여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집권 1년 차에 모든 정책적 과제를 세팅해야 5년을 남기는데, 국회도 열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에 대한 군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 책무를 거부하면 의장이 결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m.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